



대상

조승현 고등학교 1학년

2025년 4월 6일 일요일

날씨 달리기 뛰기 좋은 날씨

쓰레기 없는 마라톤 대회를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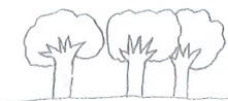


학교에서 선생님의 추천으로 마라톤 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10km 마라톤을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렸다. 평생 달려보지 않았던 10km라는 거리를 내 두 발로 뛰어 완주했다는 이주 볼충수 없는 쾌감과 성취감을 느꼈다. 혼자 달리기를 연습할 때보다 마라톤에서 더 좋은 기록이 나왔다. 경쟁심, 활기찬 분위기 등의 요인이 있었지만 중간중간 지원하다 일회용 종이컵에 나누어 주는 이온 음료도 달리기엔 큰 도움이 되었다.



달리면서 물과 음료를 받고 그저 고맙게만 생각했는데, 달리기를 뛰고 난 후에는 고민이 한가지 생겼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달리는 행사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발생할까? 수백명의 사람들이 시간 단축을 위해 빠르게 수분 보충을 하고 다시 달려야 하다 보니 모든 컵이 작은 일회용 종이컵이었다. 나도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시고 컵을 풀숲에 던졌다. 러너들이 달려간 자리에는 수십 수백 개의 종이컵이 나뒹굴고 있었다. 사람들이 건강하자고 하는 달리기 행사가 우리 기구를 이렇게 아프게 해도 되는건가? 라는 의문이 생겼다. 이렇게 잠깐의 고민을 했지만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며 마라톤 쓰레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점점 사라져갔다.

마라톤 대회가 끝난 지 3개월 정도가 지난 뒤, 나는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영상을 접하게 되었다. 일회용 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명품에 대한 이야기였다.



MARATHON



대 상

조승현 고등학교 1학년



년 월 일 요일 날씨

이 발명품의 이름은 '오호(Ooho) 캡슐'이다. 영국 런던의 왕립예술학교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이 만들었다고 한다. 이 캡슐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젤로 된 투명한 막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캡슐을 입에 넣고 깨물어 물을 마시는 방식이다. 끝막은 그대로 씹어서 먹을 수 있는데 딱지 떼고 버릴 경우에는 자연 분해되어 환경에 무해하다. 정말 혁신적이었다. 이 영상을 보자 마자 머릿속에 바로 마라톤 생각이 났다. 오호 캡슐을 이용해서 쓰레기 없는 마라톤 대회를 열면 좋겠다! 실제로 영국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오호 캡슐을 홍보하여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고 한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 하고 있다. 나도 평소에 텀블러를 꼭 챙겨 가곤 하는데. 하지만 아직도 일회용컵을 쓰는 사람들과 상견을 볼 수 있다. 지구에 나무가 많을수록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나무와 편리함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구상에 일회용컵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을 것이다. 지구 멸종화가 간헐되고 있는 오늘날, 다시 우리는 일회용컵이 없는 세상에 살아야 하지 않을까?



마라톤 대회처럼 큰 행사에서 어른들이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구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필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호캡슐같은 발명품이 많아져야 한다. 나도 환경을 지킬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것이다. 다음 마라톤에서는 친구의 기쁨과 함께 깨끗한 지구를 위한 실천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딸리기로 얻은 건강만큼이나 지구의 건강도 지키고 싶다.

Ooho!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날씨 쌀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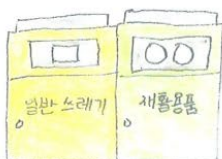
깨끗한 명동 거리를 위하여



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대안 학교에 다니다. 이번에 우리 팀이 해결할 주제는 '명동 길거리 쓰레기 문제'였다. 나는 친구들과 다각도로 자료 조사를 하며 명동의 쓰레기 문제를 탐색해 보았다. 그러던 중 인터넷 기사를 통해 명동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부족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명동 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무책임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명동은 놀거리, 볼거리가 많아서 내가 즐겨 찾는 서울 명소이다. 즐기 위한 목적으로 갔을 때는 명동의 문제가 보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명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방문을 하니 명동의 모습이 다르게 다가왔다. 명동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중심지를 살펴보니 과연 쓰레기통이 없었다. 쓰레기통은 오히려 사람의 발걸음이 뜬 곳도 외곽 부근에 많았다. 명동 길거리 외곽에는 일반 쓰레기통과 재활용 쓰레기통이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 팀은 중심지 노점상에서 음식을 사먹는 사람들을 직접 관찰해 보았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은 후 발생한 쓰레기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쓰레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사실 명동 길거리 노점 부스에는 모두 쓰레기 봉투가 구비되어 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준비된 공용 쓰레기봉투인데, 보통 노점 부스 뒤쪽에 매달려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쓰레기를 노점상에게 자연스럽게 맡긴다. 노점 주인은 쓰레기를 친절하게 처리해준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외국인 들은 쓰레기 처리 방법을 거의 다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외국인들은 쓰레기를 계속 들고 다니다가 가방에 자신의 쓰레기를 넣은 채



년 월 일 요일 날씨

명동을 돌아 다녔다. 외국인들 대상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해 보았는데 외국인들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너무 적고 쓰레기통 위치를 찾을 수 없다고 답하였다.



우리는 앞서 진행한 관찰과 인터뷰를 토대로 명동의 쓰레기 문제를 정의해 보았다. 첫째, 명동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 둘째, 외국인들은 명동에서의 쓰레기 처리 방법을 모른다. 셋째, 외국인들이 쓰레기 처리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 다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발산한 뒤, 그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을 만한 솔루션 2가지를 골랐다. 첫째, 간략한 그림과 함께 쓰레기통을 노점상 앞쪽에 배치한다. 둘째, QR 코드를 이용해 쓰레기통 위치를 안내한다.

이러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여 우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우선 거리에 있던 노점상 뒤쪽에 달려있던 쓰레기 봉투를 앞쪽으로 옮겼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의 형태를 쓰레기통으로 바꾸었다. 그와 함께 쓰레기통 위에 '이것은 공용 쓰레기통입니다' 라는 안내 문구를 4개 국어로 붙여둠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이 쓰레기통 위치를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쓰레기통 위치를 알려주는 QR 코드판을 제작하여 들고 다니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 두었다.

며칠 동안 이 프로토타입을 테스트 한 결과 외국인들이 부담감없이 편리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쓰레기통에 보이는 쓰레기량이 2배 이상 많아진 것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명동의 거리가 훨씬 깨끗해졌다. 아차 외국인 관광객의 명동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QR 코드를 찍어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보았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5점 만점에 5점을 주었고 우리에게 고마움을 전달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대상자의 입장에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실질적인 해결을 해본 의미있는 경험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의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했다는 사실에 큰 성취감을 느꼈다.



대 상

조승현 고등학교 1학년

년 월 일 요일 날씨

기후 위기가 선화되고 있는 오늘날,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나의 이번 프로젝트는 당연히도 자국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병동 길거리를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든 것은 맞지만 그것은 쓰레기의 위치만 바꾼 것일 뿐, 쓰레기를 아예 없애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쓰레기가 길거리에 방치되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이 올바르게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병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곳의 쓰레기 문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쓰레기는 재사용률을 높여 각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자꾸만 쓰레기를 만드는 유행은 생형체는 인간이라고 한다. 자꾸만 더 나은 비안하다. 앞으로 나의 생활 속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계속 고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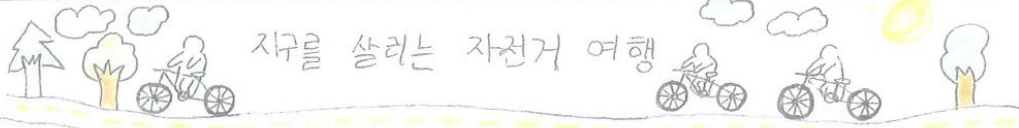
만족도 평가 Satisfaction rating: 満足度評価 满意度评级

| | | | | |
|---|--|----|-----|------|
| | | | | |
| ● | | ●● | ●●● | ●●●● |

(노원역 동쪽)

2025년 6월 2일 월요일

날씨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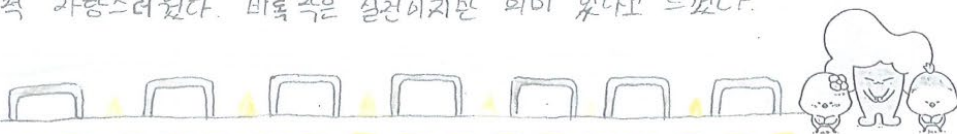
나는 여행가는 것을 좋아한다. 지금까지 주로 아빠 차를 타고 가족과 여행을 했다. 아빠 차를 타고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편하고 재미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특별한 여행을 떠났다. 어른들의 도움 없이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직접 세우고 자전거를 타고 모험을 떠났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전거를 타고 싶은 마음으로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폐물을 뿜으며 느낀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자동차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던 풍경들이 자전거 위에서는 온전히 즐겼다. 파란 하늘과 초록 나무가 새싹처럼 이렇거나 예뻐던가 싶었다. 느리게 흘러가는 북한강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이 단리 내 눈만이 아닌 마음 속으로 들어와 오래 머무는 느낌이였다. 시속 60km 이상의 속도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연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속도는 시속 20km 이하이다. 느린 속도로 만나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자전거는 나만의 속도로 나답게 여행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피곤하면 언제든 멈춰 쉴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으면 충분히 머물며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나는 무엇보다 자전거 여행을 통해 공기의 존재에 대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맑은 공기를 온몸으로 마시며 무한한 자유를 느꼈다.

솔직히 처음엔 불편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땀도 났다. 자동차보다 시간도 더 오래 걸렸고, 특히 오르막길을 오를 때 다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하지만 폐물을 뿜을 때마다 내가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하고 있다는 벅듯함이 밀려왔다. 3일간 150km나 되는 구간을 이동했는데, 만약 자동차를 탔다면 대략 15리터 정도의 연료를 소모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원형스양의 이산화탄소를 내뿜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번 여행에서 기름 혼상을 쓰지 않고 당연히 오랜 돌길을 밟을 수 있었다. 이런 여행을 가능하게 해 준 내 자전거가 무척 사랑스러웠다. 비록 작은 실천이지만 의미 있다고 느꼈다.



대 상

조승현 고등학교 1학년



년 월 일 요일 날씨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지구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오늘 느낀 이 기분을 잊기 싫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자연 친화적인 자전거 여행의 매력을 전해주고 싶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 이렇게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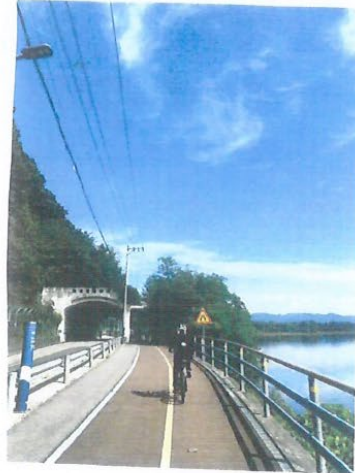
고속사에서 환승까지는 도보로 20분 정도의 거리이다. 평소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닌다. 하지만 이번 자전거 여행의 영향으로 난 서울시 따릉이를 구매했다. 너제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등교한다. 내가 좋아하는 자전거의 패달을 밟으며 아침을 맞이하니 하루가 더 상쾌하게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매일 작은 환경 실천을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도 꽤 좋다. 앞으로 나는 가까운 거리는 되도록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한다. 나처럼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자전거 도로도 더 많이 발달하면 좋겠다. 평범했던 북한강 자전거 여행이 내 환경 실천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 이제는 앞을 보며서 각구를 생각하는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늘려가고 싶다. 앞으로도 계속 될 나의 친환경 여행이 기대된다.



(아름다운 북한강 자전거길의 풍경)



따릉이



(중주 도중 잠시 쉬어가는 모습)





조승현 고등학교 1학년

2025년 6월 7일 토요일

날씨 점점 더워진다!



지구를 구하는 나의 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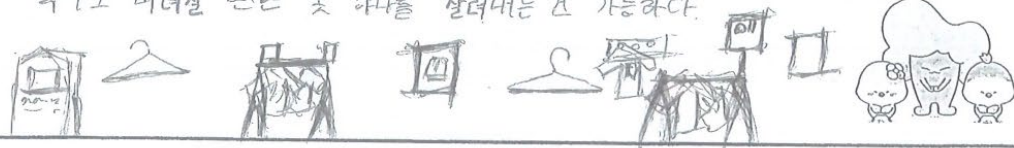
나는 패션에 관심이 많다. 아침마다 외출하기 전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좋고,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패션은 나 자신의 가치관, 개성, 취향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라고도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옷 쇼핑에 적극적이다. 그런데 옷을 살 때 일반 옷가게 보다는 중고 의류점이나 온라인 중고 의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처음 중고 의류를 접할 때에는 조금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중고 의류점에 가 보니 생각보다 훨씬 좋은 옷들이 많았다. 또한 세철의 흔적에 따라 가지각색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개성있는 스타일의 옷이 많아 좋았다. 빈티지한 느낌의 옷들은 오히려 최근 트렌드보다 더 멋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유행을 따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꾸미기 신경이 넉넉하지 않은 나와 중고 의류는 궁합이 매우 잘 맞는다.

당연하게도 중고 의류를 구매함으로써 나는 환경도 지킬 수 있었다. 중고 의류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옷 생산에 필요한 물 사용과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 먼 티셔츠 한장을 생산하는 데는 27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하니 새 티셔츠를 사는 일은 자연에게 무척 큰 부담을 주는 일이다. 중고 의류를 구매하면 새 옷 생산 과정 자체를 생략하므로 면 구매에 쓰이는 물 낭비를 줄일 수 있고, 1벌링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3kg 정도 줄일 수 있다. 중고 컴바리를 1벌 구매하면 자동차로 약 16km 주행할 때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지금까지 중고 의류를 20벌 정도를 샀는데 내가 줄인 물과 탄소가 꽤 될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패스트 패션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패스트 패션 기업은 최신 유행을 인위적으로 선두하고 유행을 빠르게 반영하여 짧은 주기로 대량의 옷을 생산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유니클로, 자라 같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트렌드에 맞는 옷을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하지만 패스트 패션은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 낭비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옷을 열심히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독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바다로 팔팔 쏟아낸다. 낮은 내구성으로 인해 오래 입지 못하여 대량의 폐의류가 발생하고, 그 때문에 또 다시 수질 오염, 대기 오염을 일으킨다.

사는 안으로 계속 패스트 패션 소비를 지양하고 중고 의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중고 의류를 소비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필요 없어진 옷이 나에게 특별한 옷이 되는 경험이다. 내가 옷을 중고로 사는 것만으로 지구를 온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버려질 뻔한 옷 해를 살려내는 건 가능하다.



대상

조승현 고등학교 1학년

년 월 일 요일 날씨

그러면 자기도 좋아할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패션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지구에게 덜 부담을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뿌듯하다. 조금은 느리고 유행과 맞지 않아도 오래 입을 수 있는 멋진 옷을 선택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VINTAGE  ZARA  





대 상

조승현 고등학교 1학년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날씨 매우 더움

지속 가능한 브랜드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라는 패션 브랜드가 있다. 나는 파타고니아란 브랜드가 그저 비싼 아웃도어 브랜드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브랜드가 지구 환경에 관심인 착한 브랜드인 것을 알고 관심과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파타고니아는 타 브랜드와 다른 점이 많다. 파타고니아는 유행을 팔지 않는다. 절속하는 제품이 유행 때문에 팔리는 것을 회망하지 않는다. 고객들이 조금 덜 소비하기를 원하며, 옷을 한번 사면 최대한 오래 입고, 망가지면 고쳐 입고, 가능하면 물려 받기를 바란다. 파타고니아는 이러한 경영 철학을 팔아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다. 파타고니아는 2011년 미국 전역의 광란의 쇼핑 열기로 가득했던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 가넷을 사기 마세요'라는 광고를 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할인과 홍보로 소비를 유혹할 때, 파타고니아는 오히려 소비를 줄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행동으로 파타고니아는 무분별한 소비에 대해 경고하고, 진짜 필요한 옷만 사라는 뜻을 전하였다. 패션 기업이 옷을 사기 말라고 역설적인 캠페인을 하는 것이 나에게 무척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또한 파타고니아는 'Worn Wear'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헌 옷을 고쳐 입는 문화를 장려한다. 매장에서 옷을 수선해주시기도 하고, 중고 의류를 다시 판매하기도 한다. 파타고니아는 1993년부터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해 만든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옷을 만든다. 또한 일반 면 대신 유기농 면을 사용하며 농약 오염을 줄였고, 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공평무역 인증을 받은 곳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파타고니아는 친환경적인 의류 제작 기술을 업계 전체에 공개한다고 한다. 이렇게 친환경 선두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패션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파타고니아는 수익의 1%는 자연 보호를 위해 기부한다. 연간 수백억 원을 환경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파타고니아의 옷이 비싸서 사지는 못하지만 파타고니아 같은 기업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든든하고 기쁘다. 앞으로 종이 생긴다면 파타고니아 옷도 한 벌쯤 마련하고 싶다. 그리고 이 다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파타고니아 사람들처럼 나의 일을 통해 지구 환경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날씨 더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제주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9박 10일 캠프에 갔다. 이 캠프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제주도라는 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 봉사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였다.

캠프 초반에 제주도에 어떠한 자연 문화 유산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다. 우리가 조사한 문화 유산은 꽃가람과 비가림이었다. 꽃가람은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자연 생태 지역으로, 음암이 흘러내려 만들어진 기형 위에 숲이 자란 곳이다. 뾰족한 바위와 울퉁불퉁한 땅이 특징이며, 다양한 생물들과 희귀 식물들의 서식지 역할을 한다. 비가림은 비가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제주도의 천연 숲이다. 제주 특유 기후에 적합한 귀한 나무들이 모여 살며, 울창한 숲이 기후 조절 역할을 한다. 이 두 곳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교육 장소로 가치가 높다. 날씨가 더웠지만 꽃가람 무성한 숲 안에서는 천연 에어컨이 켜진 듯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다. 현무암 위에 자라는 식물들의 신비한 아름다움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비가림에서는 거대한 비가 나무를 연아보여 자연과 교감하고 명상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제주도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다가 나는 꽤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해양 쓰레기가 점점 많아지고, 무리한 관광지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해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와 내 친구들은 함께 환경 오염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를 해 보니 제주도의 해양 쓰레기는 2019년에 1만톤이었던 것이 2020년이 되면서 2만톤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제주도 해양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에서 주로 나오는 해산물인 우돗가사리, 돛의 생산량도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슬픈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해양 쓰레기는 버방, 그물 등 어업 활동 쓰레기라고 한다. 그 밖에 다른 해류에서 떠벌려온 쓰레기가 섞여 있다고 한다.

또한 제주도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주도 제2공항은 현재 제주도 공항의 1.5배의 공항을 짓는 대형 사업이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과 난개발, 환경 훼손 등으로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고 한다. 제2공항을 건설할 시, 공항에 인접한 꽃가람이 훼손될 위험이 있고, 지하수를 형성하는 '숲골'이라는 지형이 파괴되어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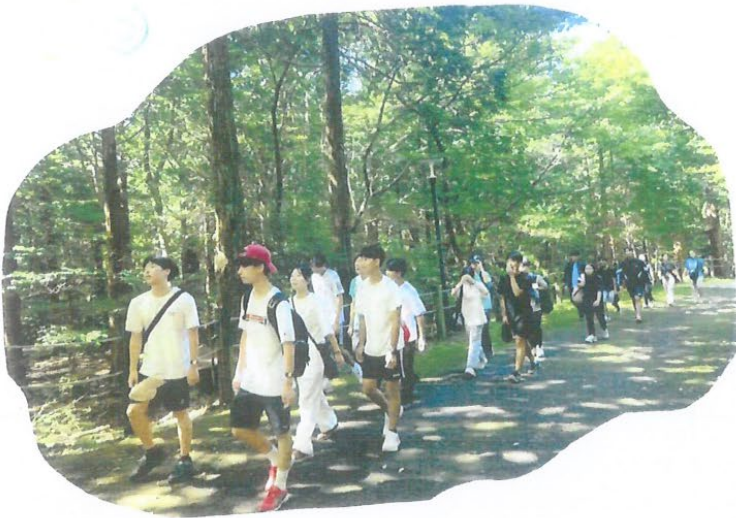


대 상

조승현 고등학교 1학년

년 월 일 요일 날씨

우리는 정려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민과 인터뷰를 해 보기로 했다. 질문은 '제주도의 해양 쓰레기의 규범은 무엇일까?'와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장 삼삼하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두가지였다. 우리는 제주도를 사잡나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만 정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제주도 해안가에 사는 분들을 인터뷰 해 본 결과 예상 밖의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이 어민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사실을 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조사한 제주도 해양 쓰레기의 원인과 심각성에 대해 주변들에게 설명해 드렸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제주도 환경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았다. 이번 활동으로 우리는 제주도에 사는 분들과 제주도의 환경 문제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 해 보았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보배이자 지구의 보물섬이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제주도민들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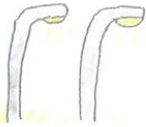
(해안가에서 환경 관련 모습)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날씨 습하고 더움! 🌸



빛이 훑친 매미의 시간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고 밤 10시인 지금도 바람 한결 없이 무덥다. 8월 중순경부터는 낮에는 따위도 밤에는 조금 시원했었는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다. 더위 때문에 밤에도 에어컨을 틀고 자는 길이 많다고 하는데, 워낙은 에어컨을 켜지 않고 창문을 모두 열고 잔다. 잘 꾸벅이 숲이 있어 꿀벌레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우리 집 식구들은 그 소리를 좋아한다. 그런데 요즘 밤에 창문을 열면 낭만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당스러운 매미 소리가 귀를 때린다. 쾅쾅쾅쾅 그 소리는 인간의 수면을 방해하고도 남는 수준의 데시벨을 자랑한다

매미는 어린 시절 나의 걸스런 친구였다. 나뭇잎 붙어 바르르 떨어 노해를 부르는 매미를 신기해하며 한참 관찰하곤 했다. 백과 사전을 찾아보니 다른 곤충과 달리 수애이는 배속 커다랗고 얇은 쿠머니를 갖고 있어 마치 고무풍선을 배에 넣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배에 위치한 근육을 움직여 팽파 하는 과정에서 진동음이 울리는데, 이때 이 쿠머니가 진동 하며 소리를 크게 커리우는 역할을 한다고 써 있었다. 나는 독특하고 심심한 매미 소리가 듣기 좋았다. 친구들다 잠자리처럼 매미를 잡았다가 놓아주며 놀기도 하였다. 매미는 도시에서 사는 나에게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 무엇보다 느끼게 해 준 존재였다. 매미 소리는 나에게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기분 좋은 소리이다.

요새 꼭교 숙제가 많아 밤 늦게까지 깨어있을 때가 많다. 때쯤에 새벽 1~2시까지 졸음을 하다 보면 밖에서 매미 소리가 무척나게 들려온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고백해야 하는 이 밤에 이기 원 대낮 분위기가 하는 궁글궁글 들었다. 그리고 내가 한 때 친구로 여기던 매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는 궁글궁글도 생겼다. 내가 어렸을 때에도 매미가 이렇게 뽀뽀 울었으나 생각해 보았는데, 꿀 먹이 나지 않았다.

매미에 관한 뉴스 기사를 찾아보았다. 관련기사도 이미 꽤 많이 올라와 있었다. 나처럼 왜 매미가 밤에도 무슨지애 대한 궁글궁글 가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리고 매미 무슨 소리로 인해 밤잠을 설친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울리는 강바가 늦게 끝나 뽀뽀에 있던 매미가 한꺼번에 부화하며 더 소리가 심해졌다고 분석하는 뉴스 기사도 있었다.

매미가 밤에 무슨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 먼저 매미는 변온 동물로서 온도에 민감하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말매미는 높은 온도에서 훨씬 활발하게 무슨지애 계속되는 열대야로 밤에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 이렇게 밤까지 울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매미의 울음 소리는 80~100 데시벨로 차량 경적 소리과 맞먹는 고음을 과시한다. 사람들이 열대야로 잠 못 들고 매미 소리에 한 번 더 잠을 설치게 된 것이다.





대 상

조승현 고등학교 1학년

년 월 일 요일 날씨

둘째, 매미는 햇빛에 반응하여 활동하는 주행성 곤충이다. 그런데 인공 조명으로 인해 매미가 낮과 밤을 분간하지 못하여 밤에도 울게 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야간 조명이 강한 곳에서 매미의 활동 시간이 3~4시간 가량 증가한다고 매미 연구자들이 밝혀하고 있다.

인간의 수면 문제도 듣게지만 매미의 건강도 걱정이 된다. 한밤중 매미 소리는 매미의 성체 리듬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밤새 자지 않고 우는 매미는 또 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 걸까? 급급히 생각 할수록 시끄러운 매미를 원망할게 아니라 인간이 매미에게 미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매미는 땅 속에서 3~7년간 유충 생활을 하다 땅 밖으로 나와서 길어야 한달 반을 산다고 한다 그런데 인간이 그 매미의 짧고도 소중한 삶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밤 늦게까지 커튼은 내 방 불빛도 우리 집 주변 매미에게 가짜 태양이 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사용하는 전기, 내가 만든 쓰레기가 매미의 밤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 밤새 우는 매미 소리가 나에게 도와줄라고 호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매미의 울음 소리를 나의 생활 습관, 기후 위기 문제와 연결되어 생각하다 보니 이 밤, 갑자기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해진다. 매미처럼 연약한 생명체가 아파하며 울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밤 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고 숙제 등을 하는 습관부터 버려야겠다. 매미도 인간도 밤에는 꼭 자는 게 자연스럽고 행복한 일이다. 소비도 줄이고 쓰레기도 줄여야지. 지구 멸망화가 빨라지도록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야겠다. 이서 빨리 일기도 덮고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매미를 도와 줄 방법은 내일 밤에 좀더 고민해 봐야겠다. 매미야, 많이 미안해

밤낮 가리지 않는 매미 울음소리, 그 이유는 도시화?

일찍 2016-08-05 20:29 | 수정 2016-08-07 05:40

